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8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수류산방水流山房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주세요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무소의 뿔 1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억울함을 당해도 변명하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문방사우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용맹청정한 행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산을 보며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8월 1일 발행, 통권 330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수류산방水流山房

8월 25일(日)

좋은 아침. 맑고 투명하고 충만한 아침.

어제 밤과 오늘 아침 같은 날씨는 한 해를 두고도 결코 흔치 않다. 이런 자연 앞에 나는 그저 고마워할 따름이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 생각해 하는 그런 아침이다.

마음에 담아 두었던 《금강경》을 소리통 꺼내어 녹음하다.

오늘이 처서. 여름 더위를 쉬어 간다는 날. 선들 가을 바람 불어오고 햇살도 투명해졌다. 올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산뜻한 날씨. 해발 800 고지인 오두막 둘레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그새 산색山色도 많이 바래지다. 초록이 짙던 숲은 어느새 성글어졌다.

초열흘 배부른 달이 구름 속에 들며 나며 오랜만에 달빛의 정취를 누리다. 덤불에서는 가을 풀벌레 소리 들리고 반딧불도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개울물 줄어 물소리도 엷어졌다. 새소리도 없다.

가을이 되면 내 마음의 거문고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머리는 가을 하늘처럼 투명해진다. 가을날 오후에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도 더러 써지더라.

정랑 앞에 해바라기 한 송이 처음으로 피어났다. 육묘 초 꽃도 볼 만하고 미나리도 한창이다. 용담은 아직 피

지 않았다.

8월 31일(金) 흐리고 더러는 비

칠월 열이틀 달 한 소나기 스치고 산 하늘에 맑은 달빛. 촛불을 밝히고 마루에 앉아 달빛 받으며 듣는 피아노 음악. 반딧불도 귀가 있는지 창 곁으로 어지럽게 날아들다.

오늘로 여름이 가고 내일이면 9월. 초가을이 달력에서도 시작되겠다. 한 주일 뒤면 백로白露이니 가을이 내릴 때도 되었지.

촛불을 밝히고 듣는 음악은 별미이네. 아래 절에서 목탁 치며 기도하는 소리 간간이 바람결에 실려 묻어 오고 있다.

여름 동안 묵혀 두었던 산중일과山中日課 내일부터 다시 챙기리라.

풀벌레 소리 어지럽다.

8월 28일(火)

날씨 좋아 창문 두 짝 바르다(큰방 앞문). 마침 밀가루가 있어 풀 쭈어 발랐다. 전에 가게에서 사 온 풀로 발랐던 창문이라 물에 불려도 깨끗이 떨어지지 않아 애 먹다. 이번이 아니면 창문 바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마음 낸 김에 발라서 달아 놓으니 방안이 한결 산뜻하다.

가을바람에 가사 말리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병석에서 일어나자 비탄에 잠긴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다는 거냐. 안으로나 밖으로나 낱알이 법을 설했다. 여래의 법에는 어떤 부분이든지 제자에게 감추는 일이 없다.”

그때 다른 종교계에서는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아난다여, 만약 내가 출가 승단의 지도자라든가 승단이 내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최후를 맞아 승단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승단의 지도자도 아니고 출가 승단이 내게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임종을 당해서도 너희들에게 할 말이 따로 없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앓는 것을 보고 아난다가 아주 걱정을 합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다가 다행히 회복된 것을 보고 아난다가 이 법문이 나오기 전에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앓아누워 위독하실 때 저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처님께서 승단에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는 돌아가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미치자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까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평등하고 화합한 사람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합니다. 즉, 화합된 단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그 일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승가가 내게 매인 거라든가 내 통솔이나 지배하에 있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부처님이 남깁니다.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지 말라. 법에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누구나 수행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구절에 당혹해합니다. 모처럼 부처님 법에 의지해 부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의지해 버리면 간단한테 그러지 말라니 당혹할 수밖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나 산신 같은 것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의지하는 실체는 결국 내 자신입니다. 하느님이나 부처님 혹은 산신 같은 것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본질적인 자아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진리입니다. 진리에 의지하면 허망하지 않습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무소의 뿔 1

그는 마침내 레슬리 패리쉬란 아주 아름답고 슬기로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아름답고 신선한 시간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기쁨을 전해 준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아름다운 레슬리로부터도 자꾸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독백을 한다.

“혼자다. 나 혼자뿐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서 살아가는가. 난 정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게 싫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다.

“한 인간에게 크나큰 희망을 투자했다가 실망하게 될까 봐 겁이 난다.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다가도 어느 순간 그녀가 전혀 딴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결국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 자신 말고는 내가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소울메이트. 영혼의 짝이란 서로의 자물통과 열쇠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내 자물통에는 그의 열쇠가 맞고, 그의 자물통에는 내 열쇠가 맞아야 하는 그런 사이다. 소울메이트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 주는 사람.

리처드 바크의 이 자서전적인 소설은 오늘처럼 삭막

하게 바닥이 드러난 어둡고 살벌한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기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45, 46, 47에 나오는 가르침은 《진리의 말씀(法句經)》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실려 있다. 45의 경우는 《진리의 말씀》 328송頌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46의 경우는 328송에,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47의 경우는 61송에,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투철한 자기 자신의 질서를 지니고 이 세상을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여럿 속에 섞여 복잡 미묘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숲속의 은자隱者처럼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상 얽히고설리게 되면 인간의 신선한 틀이 시들고 만다. 한 그루의 나무를 기를 때에도 불필요한 가지는 미련 없이 전지를 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한 관계는 절단되고 개선되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산산이 흐트러 놓는다.”

그러니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우환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빨처럼 홀로 가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부분적인 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세상을 혼자서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무소의 빨’이라도 거듭거듭 외우면서 홀로 있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영화 <7일간의 사랑>에서 나나 무스쿠리의 음성으로 이런 노래가 은은히 들려왔었지.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간밤에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가을날처럼 맑게 개었다. 이것이 이 고장의 겨울 날씨란다. 산타모니카 비치에 나가 해 지는 광경을 보고 와야겠다. 영화에서 우

리에게 눈물을 뿌리게 하던 바로 그 이별의 바닷가.

56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7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에게 가까이하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8 널리 배워 진리를 아는 고매하고 총명한 친구와 사귀라. 온갖 이로운 일을 알고 의혹을 떠나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9 세상의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0 처자도 부모도 재산도 곡식도 친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1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한 맛도 적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이구나” 하고 깨닫고 현자賢者는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2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또는 한번 타 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3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官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번뇌의 불에 타지도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4 잊이 저 버린 파리쫓타 나무처럼 재가자在家者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5 여러 가지 맛에 탐착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며, 남을 양육하지도 말라. 문전마다 밥을 빌고 어느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6 마음속의 다섯 가지 덮개를 벗기고 온갖 번뇌를 제거하여 의지하지 않으며, 애욕의 허물을 끊어 버리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다섯 가지 덮개는 탐욕, 분노, 우울, 들뜸, 의심 등을 말한다.

67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내던져 버리고, 또 쾌락과 우수를 떨쳐 버리고 맑은 고요와 안식을 얻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8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일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억울함을 당해도 변명하지 말라

열째,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뜻인데 모든 잘잘못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검고 흰 것이 저절로 드러나요. 마치 꽃향기처럼 진실을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게 되면 거기에서 원망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트이는 것이요,
트임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서는 많은 장애 가운데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내지 못한다면,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
그것을 이겨 낼 수 없다.
그래서 마침내는
법왕의 큰 보배까지도
잃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마음에 깊이 새겨
생활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지요.
역경을 이겨 내지 못하면 자신이 지닌 생명의 씨앗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꽃이 있어요.
다 꽃씨를 지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역경을 이겨
내지 못하면 그 꽃을 피워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감추어진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바세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극락도, 지옥도 아닙니다.
사바세계, 참고 견딜 만한 세상,
여기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기쁨 외우시면서 생활의 지혜로 삼기 바랍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문방사우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좋아하신 은사 스님께서는 붓글씨를 '붓장난'이라는 멋들어진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두막에 와 살면서 마음이 한가할 때면
더러는 먹을 갈아 서투른 붓장난을 한다.

마루방 벽에 휴정 선사의 다음 같은 시를 써서

붙여 놓았는데 이 오두막의 경계와 비슷해서
차를 마시면서 눈길을 보낼 때가 잦다.

바람은 자도 꽃은 지고
새소리에 산은 더욱 그윽하다
새벽은 흰구름과 더불어 밝아 오고
물은 밝은 달 따라 흘러간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용맹청정한 행

이러는 동안 미묘한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며,
모든 서원을 장엄하고 증득할 곳에 들어가
온갖 행을 닦아 6바라밀을 가득 채웠다.
또 그 부처님들의 성도와 설법이 저마다 다르지만
어지럽지 않음을 알았고,
남기신 가르침을 지니고 열반에 들기까지를 보았다.
또 그 부처님들이 본래 세운 서원과
삼매의 원력으로 모든 불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일체행一切行삼매에 들어간 힘으로
보살행을 청정하게 닦고,
보현普賢의 법인 벗어나는 힘으로써
여러 부처님의 바라밀을 청정히 하심을 알았다.

선남자여,
내가 거닐 때 잠깐 동안에 시방세계가
다 앞에 나타났으니 지혜가 청정한 까닭이며,
잠깐 동안에 모든 세계가 앞에 나타났으니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가 경과한 것이다.
잠깐 동안에 수많은 부처님 세계가
깨끗이 장엄했으니
큰 서원을 성취한 것이며,
잠깐 동안에 많은 중생의 차별된 행이
앞에 나타났으니
열 가지 힘의 지혜가 가득 찬 것이다.

또 잠깐 동안에 많은 부처님들의
청정한 몸이 앞에 나타났으니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한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수순隨順하는
등해탈문等解脫門을 알 뿐,
저 보살 마하살들은 금강등燈과 같아서
여래의 집안에 바르게 태어나
죽지 않는 목숨을 성취하며,
항상 지혜의 등불을 켜서 꺼질 때가 없다.
그 몸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고,
허수아비와 같은 육신을 나타내되
연기법緣起法이 한량없이 차별하는 것과 같으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저마다 형상과 모습을 나타내되
세상에 짝할 이가 없다.
독한 칼이나 화재로도 해칠 수 없음이
금강산과 같아 아무도 깨뜨릴 수 없으며,
악마와 외도를 항복시키며,
몸이 홀륭하기가 황금산과 같아서
인간 천상에서 가장 뛰어나며,
이름이 널리 퍼져 듣지 못한 이가 없다.
세상을 보되 눈앞에 대하듯 하며,
뜻깊은 법장法藏을 설함이
바다가 다함이 없는 것과 같으며,
큰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니
이를 보는 이는 반드시 모든 장애의 거대한 산을 헐고,
온갖 선하지 못한 근본을 뽑아 버리고
반드시 광대한 선근을 심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만나기도 어렵고
세상에 나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명문名闢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강가에 자재주自在主 동자가 살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보살의 용맹청정한 행을
끝까지 다하고자 하며,
보살의 큰 힘과 광명을 얻고자 하며,
보살의 이길 이 없고
다함없는 공덕행을 닦고자 했다.
또 보살의 견고한 큰 원을 채우고자 하며,
보살의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을 이루고자 하며,
보살의 끝없이 홀륭한 행을 지니고자 하며,
보살의 법에 만족할 줄 모르고
보살의 공덕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또 항상 모든 중생을 거둬들이고자 하며,
생사의 숲과 광야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선지식을 항상 보고 듣고 섬기고 공양하는 데
싫은 생각이 없어,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산을 보며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메마르고
참을성이 부족할 때
오해받는 일이 억울하여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는 창을 열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희망이 생기고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삼복더위에 별고 없는가.
더위에 지치지나 않았는가.
더위를 원망하지 말라.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그 가을바람 속에서 이삭이 여물고
과일에 단맛이 든다.
이런 계절의 순환이 없다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법정 스님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코로나19로 인해 2년 3개월 동안 많은 봉사자가 모여서 반찬 조리하는 것이 어려워 반조리 식품을 구입, 포장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말부터 매주 목요일 20~25명의 봉사자가 모여 결연 가정 460가구에 보내 드릴 반찬 조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당분간은 목요일에만 진행하면서 차츰 봉사자 인원이 늘어나면 목, 금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활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해서인지 봉사자와 사무국도 조금 정신 없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의 열정은 한결같았습니다.

반찬 나눔 메뉴는 6월 5째 주 '돼지 제육, 미역국, 김' 7월 1째 주 '삼계탕, 양념깻잎, 국수' 7월 2째 주는 '김치, 양파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반찬 재료가 예전보다 15% 이상 늘고 있어 다소 걱정입니다. 반찬 나눔 활동에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물품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는 소식에 외부 활동이 추츨해질 수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에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 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 지원 활동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도 그동안 멈추었던 만발식당 점심 급식 봉사 활동을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자원 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탁 정리, 배식, 식기 세척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식 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 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니 목도리 뜨개질 봉사 활동(향기소리)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봉사 활동이 올해부터는 미니 목도리 뜨기 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자 뜨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저마다 각자의 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목도리들은 10월경 취합해 겨울이 오기 전에 필요한 노인 시설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한 모자(5,915개)와 담요(26장)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시즌 15에 참여, 아시아의 작은 마을에 전달되었으며 지난 5월 20일 캠페인 참여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정책 변화로 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국제 구호가 아닌 국내 구호로 활동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만, 향기소리 봉사자분들은 초고령화 사회에 복지 혜택이 부족한 분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자원 활동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생태 사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들은 우리 꽃과 야생화 가꾸기를 비롯해 화단에 물 주기, 잡초 제거, 낙엽 정리, 거미줄 제거, 물청소 등 길상사를 안팎으로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화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길상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법문 기록 <<꽃한테 들어라>> 출간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법정 스님의 육성 법문을 가려 엮은 법문 모음집 <<꽃한테 들어라>>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 12주기 추모 법회 즈음에 공개된 육성 법문 데이터 36편을 복원 정리한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법문' 중에서 뽑은 것입니다.

'꽃한테 들어라' '어디서 따로 찾는가?' '무엇을 보는가?' '오늘부터 산다' '나서서 베풀어라' '너를 믿는가?' '무엇하는가?' 등 13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고난과 분노가 뒤섞인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복을 향한 깨달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나아가 모든 불자들에게 법정 스님의 법문 한마디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 기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

덕조 스님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출간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덕조 스님의 향기 소리'에 날마다 쓴 글과 불일암 주변의 사계절 모습, 티베트 등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을 가려 뽑은 에세이집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새 아침을 열었던 그 글귀 가운데 엄선한 330여 편의 마음 맑히는 아포리즘과 눈 밝히는 40여 장의 컬러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이해인 수녀님이 "스님이 초대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뜰에서는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행복한 경험을 하는 일상의 여행자, 기도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즘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살며 명상보다는 망상을 더 많이 하는 저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읽어 본 스님의 새 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는 추천의 글을 써 주었습니다. (김영사 출판)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8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 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참여하시려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지부 사무국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8월 6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기도는 극락전, 설법전 및 극락전 마당 천막에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개인별 발원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 백중 아미타기도 및 백중 49재(천도재)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6재	8월 5일(금)	선망 조상을 위한 천도재
막재	8월 12일(금)	선망 조상을 위한 천도재

● 영가 지못 접수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에 마련된함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 2023년 수능 입시기도 입재 안내

● 일시 : 8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수능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입재 후 매일 기도는 오후 2시에 봉행합니다.

● 칠석기도

● 일시 : 8월 2일(화)~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8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8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1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8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